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의복욕구에 따른 교복복장규제에 대한 반응

박영은¹⁾ · 오경화²⁾

¹⁾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²⁾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Response of the Adolescents to the School Uniform Regulations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and Clothing Needs

Bak, Yeong-Eun¹⁾ and Oh, Kyung Wha²⁾

¹⁾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 The response of the adolescents toward school uniform regulations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and clothing needs was studied. To carry out this experimen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14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Varimax rotation), Cronbach's α , Frequencies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15.0. By surveying on actual condition of uniform regulation in school,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uniform regulation was unnecessarily strict and caused stress leading a negative educational effect.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gree of regulation, stress, and student attitude toward school uniform regulation, stress and negative attitude to uniform regulation increased as the degree of regulation increased, resulting in an decrease in observance behavior of students. Since the stress from the school uniform regulation can be reduced by establishing rational law, which induced voluntary conduct of student to obey, it is important for student to participate in establishment of adoptable and reasonable school uniform regulation law.

Key words: Adolescent, Character, School Uniform Regulation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청소년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획일화된 교복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은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교복변형행동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는 교복변형뿐만 아니라, 화장, 헤어스타일, 피어싱과 귀걸이 등의 장신구의 착용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애경 외, 2008).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학생용의복장규정에 위배되어 일선 학교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용의복장규정에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두발, 교복, 신발, 체육복, 휴대품, 가방 등의 종류, 색상, 모양 등이 일일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규제가 자율성과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인권적 행위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점차 정신적으로 성숙하면서 자율적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

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인권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초미니 스커트의 열풍은 학생들의 교복변형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중·고 여학생들이 성인들의 초미니 스커트를 표방하여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복 변형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학부모단체는 이러한 교복 변형의 문제를 일선 학교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학교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미니치마 등 방치”, 2010). 즉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정을 지키고 때로는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청소년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기성세대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개정 7차 교육과정(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했다. 이처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교육 공급자인 교육부가 모두 자율성과 창의성을

Corresponding author; Oh, Kyung Wha
Tel. +82-2-820-5381, Fax. +82-2-826-4243
E-mail: kwhaoh@cau.ac.kr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일선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복장규제도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청소년의 인권과 규제에 관한 연구들(김복례, 2005; 류지영, 2001; 안선경, 2000; 이해숙, 2002; 조안나, 2008)에서 학생은 인권의 주체이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인권 존중 의식의 부재로 인하여 기본권의 포괄적인 제한과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장규제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인정하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복장규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의복욕구에 관한 연구들(고애란 외, 1999; 이애경 외, 2006; 정준교, 2000; 정준교, 이선경, 1999; 정준교, 이선경, 2003)에서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의복행동, 의복태도, 교복만족도, 교복변형행동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의 의복 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의복욕구에 따른 복장규제 반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처벌금지 시행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경기도 학교체벌”, 2010) 이 시기에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장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생용의복장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복장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의복욕구와 복장규제에 대한 태도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행해지는 복장규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복장규제로 인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의 복장규제와 학교생활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복장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의복욕구 및 검사강도와 복장규제에 대한 반응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고등학교의 복장규제 실태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 시각에 따른 복장규제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복장검사 강도 시각과 복장규제 반응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복장규제 반응

복장규제 반응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복장규제로 인해 청소년

년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개념으로서 복장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는 가를 묻는 준수행동과 복장규제에 대한 태도와 복장규제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장규제 준수행동은 자발적인 준수 정도 및 준수노력 과 준수권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조안나(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용의복장규정 준수성향은 학년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준수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이 낮은 하위그룹의 응답자들은 중상위권 응답자들에 비해 준수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용의복장규정의 위반 정도는 여학교와 남녀공학에 비해 남학교 학생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용의복장규정의 위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택(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하였으며 성적에 있어서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오히려 더 높은 규정준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복장규제 태도는 복장규제의 장점인 긍정적 태도와 단점인 부정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영인, 강혜원(1981)의 연구에서는 개인은 특수한 집단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집단 규칙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여 교복 착용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간의 긴장 완화 및 이해 증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효과적인 성인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지식축적에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한다고 교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과도한 학생신분의 노출, 미적 감각 및 개성의 결여, 비활동성 등을 교복의 부정적 효과라고 하였다. 김정희(1990)와 이수희(1988)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복의 장점으로는 옷에 신경을 덜 쓰고 학생 신분에게 맞게 행동하게 되며 단정해 보인다는 점이었고, 단점으로는 비활동적이라는 점과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점으로는 학생 신분임이 확실해진다는 점이었고 교복을 착용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시킬 수 있다는 목적도 있다고 하였다.

복장규제 스트레스는 청소년이 복장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적을 당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를 많이 겪으며, 가족과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요셉, 2009).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에서 발표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 32.66%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고, 55.24%의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15-18세의 청소년이 12-14세의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장규제 반응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복장규제 태도를 형성시키고 복장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청소년의 복장규제 준수

행동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학교의 복장규제 문화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성격특성

Eysenk(1960)는 성격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징적으로 독특하게 보이는 어느 개체의 모든 인지적·감정적·능동적·신체적 영역의 통합체라고 정의하였으며, 성격특성을 내향성, 외향성, 안정성, 불안정성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범모(1988)는 성격특성을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의 6개 영역으로 분류했고, 정준교, 이선경(1999)의 연구에서는 창의성, 자율성, 책임성, 동조성, 개성, 자신감(자기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성격특성은 몇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이나 견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복장행동에 대한 연구들(이수희, 1988; 정준교, 이선경, 1999)에 의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복장을 착용토록 하는 것이 성격특성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현재의 학교상황에서 개성과 창의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려면 복장행동에 대한 학교의 규범을 바꾸거나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책임감, 자신감의 변인을 기초로 연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Osborn(손유정에서 재인용, 2000)에 따르면 창의적 잠재 능력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며, 창의성은 천재적인 사고 능력, 생산적 사고와 착상 및 독창적인 사고 등을 표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사태나 문제를 개인 나름의 새롭고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창의성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복장의 규제와 관련지어보면 획일적으로 주어진 교복을 선택하여 기계적으로 착용할 때보다 다양한 의복행동을 통하여 의복의 선택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율성과 더불어 창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정준교(2000)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은 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복장변형행동의 긍정적 심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창의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장신구착용을 더 하고, 의복변형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준교, 이선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개성과 자기효능감 및 자율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창의성과 태도 동조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Glasser(1995)(송한경에서 재인용, 2002)는 책임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욕구충족의 능력을 박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감이 있다고 전제된 것이며 어떠한 과거의 조건이나 현재의 여러 여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고 보았

다. 유관순(1984)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책임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구성 및 제작이나 의류계획 및 정리에 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의류 및 액세서리 쇼핑에 관한 관심은 낮다고 하였다. 강경자(1984)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책임성이 클수록 의복에 있어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고, 이인자(1975)는 양심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며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즉,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의복에서의 심미성, 주의성, 관리성, 안정성, 의존성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Vealey(1986)(정준교, 이선경에서 재인용, 1999)는 자신감이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자신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있는데,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을 묘사하는 말로서 상황적으로 구체적인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동조성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떤 과제에 대해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피험자들이 집단의 압력에 덜 동조한다고 하였다. 김현주, 박진영(2007)의 청소년의 자기표현 욕구와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남과 다르게 독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누군가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 눈에 띄는 자기표현을 많이 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누군가에 보이고, 잘 보이게 하려는 인식을 많이 갖을수록 자기표현의 독특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한미숙(2002)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중요시하는 의복행동을 하게 되므로 친구들이 흔하게 입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하지 않고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의복욕구

Hillestad(1974)(조영주에서 재인용, 2002)는 의복이란 자신의 역할, 성,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자아의 중요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심리적 욕구의 한 예라고 하였다. 의복욕구란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선택, 습관 및 착용의 행위로 표현되며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태도, 신분 등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은 교복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 활동성, 교복의 맞춤새, 개성추구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냈다(고애란 외, 1999). 이러한 불만족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황진숙 외, 2002)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복변형행동으로 연결되며 이에 동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하나의 개성표현으로 간주하여 유행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복욕구는 몇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이나 견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생의 의복욕구에 관한 이론 중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성격특성의 변인과 관련이 있으며 복장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특성, 유행추구성, 동

조성의 변인을 기초로 연구하였다. 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Snyder and Fromkin(유연제에서 재인용, 2002)독특성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시만의 독특성이나 고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순응적인 개인의 욕구로 정의 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외적인 행동을 통해 표출하고자 한다. 독특성 욕구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유사한 환경에서조차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수준의 독특성 욕구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발달상에서 높은 독특성을 획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낮은 독특성 욕구를 획득 한다. 즉 독특성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의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들은 특별함(specialness)의 느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특성 욕구가 높은 학생은 교복착용으로 인해 의복행동이 제한적일 경우 남과 다른 특별함을 표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복장규제에 비순응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강혜원(1984)은 유행이란 특정시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타일 또는 생활양식으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인 집합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유행추구성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의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은숙, 서정희(2000)는 사람들은 독특하고 눈에 띄는 것을 채택하게 되며 독특하다는 느낌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유행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유행추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한 자이를 보호받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타인을 따르는 의존적 성격을 허용하고 균중과 더불어 행동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취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행추구적 소비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남과 다르게 특별하고자 하는 독특성의 욕구와 남과 유사해짐으로써 안정을 얻고자 하는 동조성 욕구와 관계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Kiesler and Kiesler(정준교, 이선경에서 재인용, 1999)에 따르면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압력, 즉 심리적 압력의 결과로서 집단이 기대하는 대로 신념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동조함으로써 정체감과 소속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동조성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 1995). Horn & Gual (1981)(김도희, 정성지에서 재인용, 2002)은 ‘의복동조는 특정 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규범적 동조만을 중심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의복 동조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한미숙(2002)의 연구에서는 자이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동조성이 낮다고 하였는데 일반 자이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중요시하는 의복행동을 하게 되므로 친구들이 흔하게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

의 옷을 선택하지 않고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홍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에 동조하려는 학생이 과시성과 심미성도 함께 높았는데 이는 의복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안진, 2007)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하는 남, 녀 중·고등학생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6월부터 7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총61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514부를 최종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학생은 63.6%, 남학생은 36.4%로 나타났고,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2학년 34.8%, 고등학교 2학년 21.0%, 고등학교 1학년 20.4%, 중학교 1학년 12.8%, 중학교 3학년 10.9%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종류별로는 여학교가 48.6%, 남녀공학이 26.8%, 남학교가 24.5%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수준별로는 중 36.6%, 중상 24.1%, 중하 20.6%, 상 10.3, 하 8.4%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수	구성비율(%)
성별	남	187	36.4
	여	327	63.6
	합계	514	100
학년	1학년	66	12.8
	중학교 2학년	179	34.8
	3학년	56	10.9
	1학년	105	20.4
	고등학교 2학년	108	21.0
	합계	514	100
학교종류	남학교	126	24.5
	여학교	250	48.6
	남녀공학	138	26.8
	합계	514	100
성적수준	상	53	10.3
	중상	124	24.1
	중	188	36.6
	중하	106	20.6
	하	43	8.4
	합계	514	100

Table 2. 설문지의 구성

조사내용	질문내용	문항 수	참고자료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4	
	학년		
	학교종류		
성격특성	성적		
	창의성	3	정준교(1999)
	책임감	3	정숙정(1987)
	자율성	3	오미숙(1996)
	자신감	3	정숙정(1987)
의복욕구	독특성	3	정명근(2005)
	동조성	6	김현지(2009)
	유행추구성	3	김현지(2009)
복장규제	복장검사 강도지각	3	안진(2007) 류지영(2001)
	복장검사 항목	3	
	복장검사 빈도지각	1	
	복장검사 처벌방법	1	
	준수행동	4	이경자, 김용숙 (2001)
긍정적 태도	4		
부정적 태도	4		
스트레스	4		
합계		52 문항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 성격특성에 관한 문항, 의복욕구에 관한 문항, 복장규제의 실태에 관한 문항, 복장규제에 대한 반응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와 같다. 첫째, 인구 통계적 특성 영역에서는 성별, 학년군, 학교의 종류, 성적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성격특성을 조사하는 영역에서는 오미숙(1996), 정준교(2000), 정숙정(1987)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의복욕구를 조사하는 영역에서는 정명근(2005), 김현지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복장규제 실태를 조사하는 영역에서는 안진(2007), 류지영(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합한 항목을 선택 수정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복장규제 반응을 조사하는 영역에서는 긍정적·

Table 3. 성별에 따른 복장검사 강도지각 및 빈도지각

구분	성별	M	SD	t	p
복장검사 강도지각	남(187)	3.797	1.032	7.438 ***	.000
	여(327)	3.113	.948		
복장검사 빈도지각	남(187)	3.797	.985	1.608	.108
	여(327)	3.667	.819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	남(187)	3.765	1.163	3.790 ***	.000
	여(327)	3.388	.926		
복장검사 강도지각	남(187)	4.123	.783	-.501	.616
	여(327)	4.167	1.047		

* p < 0.05 ** p < 0.01 *** p < 0.001

부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을 이경자, 김용숙(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스트레스와 준수행동을 묻는 문항은 본 연구자가 제작 한 후 교육전문가 그룹의 평가와 토의를 거쳐 적합한 항목을 선별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규제 반응에 관한 질문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복장규제 실태에 관한 문항 중 복장검사 강도지각과 빈도지각에 관한 문항은 5점 척도, 복장검사의 항목과 처벌방법에 관한 문항은 4-5지 선다형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은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3. 자료 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514부의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test, One Way ANOVA 분석(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검증 Duncan Test,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중·고등학교의 복장규제 실태

중·고등학교 복장규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발, 교복,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검사 강도지각과 복장검사 빈도지각을 조사하였으며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복장규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복장검사 항목과 처벌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복장검사 강도지각 및 빈도지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3>과 같이 두발검사 강도지각(t=7.438, p<.001)와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검사 강도지각(t=3.790, p<.001)순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군에 따른 차이는 <표 4>와 같이 두발검사 강도지각(t=3.308, p<.01), 교복검사 강도지각(t=2.117, p<.05),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검사 강도지각(t=2.140, p<.05)순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Table 4. 학년군에 따른 복장검사 강도지각 및 빈도지각

구분	학년	M	SD	t	p	
복장검사강도지각	두발	중(301)	3.488	1.002	3.308**	.001
		고(213)	3.183	1.050		
	교복	중(301)	3.784	.854	2.117*	.035
		고(213)	3.615	.917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	중(301)	3.608	1.003	2.140*	.033	
	고(213)	3.409	1.067			
복장검사 빈도지각	중(301)	4.047	.985	-2.99**	.003	
	고(213)	4.299	.900			

* p<0.05 ** p<0.01 *** p<0.001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복장검사 빈도지각($t = -2.99, p < .01$)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종류에 따른 차이는 <표 5>와 같이 두발검사 강도지각($F = 23.228, p < .001$),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검사 강도지각($F = 17.347, p < .001$), 복장검사 빈도지각($F = 5.182, p < .01$)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복장검사 강도지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사후검증인 Duncan 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발검사 강도지각은 남학교(A), 남녀공학학교(B)와 여학교(C)의 순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검사 강도지각은 남학교(A)가 여학교(B)와 남녀공학학교(B)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장검사 빈도지각은 여학교(A)가 남녀공학학교(B)와 남학교(B)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현, 이윤정(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

Table 5. 학교종류에 따른 복장검사 강도지각 및 빈도지각

종속변수	학교종류	M	SD	F(p)	
복장검사 강도지각	두발	남학교	3.8571 A	.97746	23.228*** (.000)
		여학교	3.1200 C	.90158	
		남녀공학	3.3478 B	1.14402	
	교복	남학교	3.8413	.95844	2.302 (.101)
		여학교	3.7080	.75963	
		남녀공학	3.6087	1.00680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	남학교	3.9683 A	1.01931	17.343*** (.000)	
	여학교	3.4360 A	.87232		
	남녀공학	3.2826 B	1.18992		
복장검사 빈도지각	남학교	3.9841 B	.72646	5.182** (.006)	
	여학교	4.2886 A	1.01521		
	남녀공학	4.0580 B	1.00921		

a: 5점 리커트 척도(1-5점)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값, 점수가 클수록 검사강도, 검사빈도가 높음을 의미함

b: Duncan Test 결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알파벳 순서는 크기순서와 같음

학생에 비하여 규제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규제강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을 보였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상위권인 학생보다 규제강도를 높게 지각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의 복장규제의 실태 중 검사항목과 처벌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두발검사에 대한 검사항목에 관한 결과는 염색 금지 97.5%, 머리 길이 제한 95.7%, 파마 금지 95.1%, 젤이나 무스 사용 금지 66.3%,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검사에 대한 검사항목에 관한 결과는 교복의 길이 제한 84.2%, 교복의 폭(치마 및 바지의 통) 제한 77.0%, 교복과 사복을 혼용 금지 66.9%, 색상과 무늬가 있는 사복 착용 금지 60.7% 교복 이외의 셔츠 및 블라우스

Table 6. 복장검사 항목 및 처벌방법

구분	빈도(%)	
두발	머리 길이	492(95.7)
	젤이나 무스 사용	341(66.3)
	염색	501(97.5)
	파마	489(95.1)
복장 검사 항목	교복 외 셔츠 및 블라우스 착용	295(57.4)
	교복의 길이	433(84.2)
	교복의 폭(치마 및 바지의 통)	396(77.0)
액세서리 및 꾸미기	교복과 사복을 혼용	344(66.9)
	색상과 무늬가 있는 사복 착용	312(60.7)
	신발의 디자인과 색상	154(30.0)
	가방의 디자인과 색상	100(19.5)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착용	497(93.2)
	색조화장을 비롯한 화장	427(83.1)
	손톱 장식 및 매니큐어	436(84.8)
복장검사 처벌방법	즉시 수정	320(62.3)
	교육벌(체벌)	192(37.4)
	반성문	49(9.5)
	언어적 훈계와 선도	196(38.1)
벌점	227(44.2)	

Table 7. 성격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빈도(n)=514)

요인명	설문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책임감	내가 맡은 일은 하려고 든다.	.652	4.913	13.013 (13.013)	.715
	시작한 일은 끝을 맺는 편이다.	.638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실천한다.	.598			
	숙제는 밀리지 않게 한다.	.568			
창의성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을 가진다.	.688	1.826	12.649 (25.662)	.761
	회의 때 독창적인 의견을 자주 말한다.	.685			
	거의 맨 처음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다.	.556			
자신감	여럿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견을 잘 말한다.	.720	1.020	11.850 (37.512)	.752
	혼자서도 무엇이든 결정을 잘한다.	.584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463			
	나는 뒷사람의 말이라도 솔직하게 나쁘다고 말 할 수 있다.	.451			

착용을 금지 5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 검사항목에 관한 결과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착용 금지 93.2%, 손톱 장식 및 매니큐어 금지 84.8%, 색조화장을 비롯한 화장 금지 83.1%, 신발의 디자인과 색상 제한 30.0%, 가방의 디자인과 색상 제한 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현, 이윤정(2008)의 연구에서 종목별로 머리길이와 변형, 장식의 규제에 대하여 가장 높게 지각하고 전체적으로 두발과 관련한 규제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겹옷에 대한 규제, 교복의 규정외착용에 대한 규제가 높은 반면 가방과 신발과 관련한 규제를 낮게 지각한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였다.

복장검사에 따른 처벌방법에 관한 결과는 즉시 수정 62.3%, 벌점 44.2%, 언어적 훈계와 선도 38.1%, 교육별(체벌) 37.4%, 반성문 9.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반성문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2011년 3월부터(“경기도, 학교체벌”, 2010) 시행하기 시

작한 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와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하고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목이 적용되어 학교현장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학교 문화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2. 성격특성, 의복욕구, 검사강도에 따른 복장규제 반응의 차이

4.2.1. 성격특성 및 의복욕구의 구성요인 분석

본 연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추출은 측정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초기에 구한 요인들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요인회전은 직교회전인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은 고유값이 1.017 이

Table 8. 의복욕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빈도(n)=514)

요인명	설문항목	요인적재치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동조성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구매하는 편이다.	.801	4.1666	21.054 (21.054)	.785
	나는 개성이 강한 옷보다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699			
	낮선 그룹과 함께할 때는 내 옷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멤버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입고 싶다.	.561			
	나는 친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옷가게를 이용한다.	.539			
	어느 계층에 속하려면 그 계층의 사람이 입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84			
독특성	나는 사람들이 덜 입어 희소성이 있는 패션 상품을 선택하여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싶다.	.870	2.032	16.537 (37.591)	.791
	나는 남과 구별되는 나만의 스타일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션상품이나 브랜드를 자주 찾는다.	.707			
	나는 무조건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개성적인 패션상품에 더 관심이 많다.	.643			
유행 추구성	나는 신상품이 나오면 사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702	1.017	16.389 (53.980)	.768
	나는 옷을 살 때 유행하는 디자인을 주로 구입한다.	.669			
	나는 유행이 지난 옷을 잘 입지 않는다.	.578			

상인 요인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먼저 성격특성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의 요인의 총 누적변량은 61.923%였으며, 각 요인들의 문항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715에서 0.761사이로 나타나 신뢰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책임감, 창의성, 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의복욕구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의 요인의 총 누적변량은 65.593%였으며, 각 요인들의 문항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768에서 0.791사이로 나타나 신뢰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동조성, 독특성, 유행추구성으로 명명하였다.

4.2.2. 성격특성, 의복욕구, 검사강도에 따른 복장규제 반응의

차이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의복욕구에 관한 연구들(고애란 외, 1999; 이애경 외, 2006; 정준교, 2000; 정준교, 이선경, 1999; 정준교, 이선경, 2003)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다양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장규제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의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지각이 복장규제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지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복장규제반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지각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복장검사 강도지각($\beta = .241, t = 5.802, p < .001$), 독특성($\beta = .152, t = 3.138, p < .01$), 유행추구성($\beta = .120, t = 2.236, p < .05$), 자신감($\beta = .118, t = 2.180, p < .05$), 동조성($\beta = .108, t = 2.148, p < .05$)의 순으로 스트레스에

Table 9. 복장규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p	F(R ²)
스트레스	책임감	-.147	-3.311**	.001	14.375 (0.166)
	자신감	.118	2.180*	.030	
	창의성	-.059	-1.142	.254	
	동조성	.108	2.148*	.032	
	독특성	.152	3.138**	.002	
	유행추구	.120	2.236*	.026	
	복장검사 강도지각	.241	5.802***	.000	
긍정적 태도	책임감	.164	3.477**	.001	5.184 (0.067)
	자신감	-.051	-.894	.372	
	창의성	.099	1.818	.070	
	동조성	.108	2.026*	.043	
	독특성	-.093	-1.818	.070	
	유행추구	-.186	-3.290**	.001	
	복장검사 강도지각	-.043	-1.009	.314	
부정적 태도	책임감	-.097	-2.177*	.030	14.651 (0.169)
	자신감	.154	2.852**	.005	
	창의성	.008	.157	.875	
	동조성	-.114	-2.273*	.023	
	독특성	.052	1.071	.285	
	유행추구	.295	5.527***	.000	
	복장검사 강도지각	.195	4.714***	.000	
준수행동	책임감	.208	4.750***	.000	17.419 (0.194)
	자신감	.024	.458	.647	
	창의성	.211	4.143***	.000	
	동조성	.121	2.440*	.015	
	독특성	-.099	-2.073*	.039	
	유행추구	-.366	-6.964***	.000	
	복장검사 강도지각	-.023	-.557	.578	

*.p<0.05 ** .p<0.01 *** .p<0.001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감($\beta = -.147, t = -3.311, p < .01$)은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14.37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166$ 로 16.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지각에 따른 복장규제의 태도 중 긍정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책임감($\beta = .164, t = 3.477, p < .01$)과 동조성($\beta = .108, t = 2.026, p < .05$)은 긍정적 태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며, 유행추구성($\beta = -.186, t = -3.290, p < .01$)은 긍정적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5.18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67$ 로 6.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복장규제 태도 중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행추구성($\beta = .295, t = 5.527, p < .001$), 복장검사 강도지각($\beta = .195, t = 4.714, p < .001$), 자신감($\beta = .154, t = 2.852, p < .01$)의 순으로 부정적 태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조성($\beta = -.114, t = -2.273, p < .05$)과 책임감($\beta = -.097, t = -2.177, p < .05$)의 순으로 부정적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14.65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169$ 로 16.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지각에 따른 준수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책임감($\beta = .208, t = 4.750, p < .001$), 창의성($\beta = .211, t = 4.143, p < .001$), 동조성($\beta = .121, t = 2.440, p < .05$)의 순으로 준수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행추구성($\beta = -.366, t = -6.964, p < .001$), 독특성($\beta = -.099, t = -2.073, p < .05$)의 순으로 준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17.41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194$ 로 1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책임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복장검사 강도지각, 독특성, 유행추구성, 자신감, 동조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그리고 책임감과 동조성이 높을수록 긍정적태도는 높아지고, 유행추구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는 낮아진다. 반면 유행추구성, 검사강도지각,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는 높아지고, 동조성과 책임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는 낮아진다.

그리고 책임감, 창의성, 동조성이 높을수록 준수행동은 높아지고, 유행추구성과 독특성이 높을수록 준수행동이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복장변형 행동을 많이 한다는 김현화(2007)의 입장과 특이한 것을 선호 할수록 탈규범적이라는 송인섭, 김혜숙(1999)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복장변형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정준교, 이선경(1999)의 연구와 동조성과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교복변형을 더 많이 한다는 노지영 외(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책임감과 창의성은 복장규제반응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책임감과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이 복장규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복장규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시키고 복장규제에 대한 준수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장규제의 긍정적 태도와 준수행동을 낮추는 요인인 유행추구성을 청소년에게 지양시키기 보다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더 높다(김현주, 박진영, 2007)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고 복장규제를 완화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복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3. 복장검사 강도지각, 스트레스, 복장규제태도, 준수행동의 영향 관계

복장검사 강도지각은 스트레스와 복장규제태도 및 준수행동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보다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복장검사 강도지각, 스트레스, 복장규제태도, 준수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복장검사 강도지각($\beta = .262, t = 6.151, p < .001$)은 스트레스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37.83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69$ 로 6.9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복장검사 강도지각($\beta = -.053, t = -1.211, p > .05$)은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장검사 강도지각($\beta = .243, t = 5.665$,

Table 10. 복장검사 강도지각, 스트레스, 복장규제태도, 준수행동의 영향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t	p	F(R ²)
스트레스	복장검사 강도지각	.262	6.151 ^{***}	.000	37.831(.069)
긍정적 태도	복장검사 강도지각	-.053	-1.211	.227	1.466(.003)
부정적 태도	복장검사 강도지각	.243	5.665 ^{***}	.000	32.088(.059)
긍정적 태도	스트레스	-.319	-7.622 ^{***}	.000	58.100(.102)
부정적 태도	스트레스	.551	14.958 ^{***}	.000	223.730(.304)
준수행동	스트레스	-.264	-6.204 ^{***}	.000	38.488(.070)
준수행동	긍정적 태도	.505	13.251 ^{***}	.000	175.586(.255)
준수행동	부정적 태도	-.244	-5.693 ^{***}	.000	32.409(.060)

*.p<.05 **p<.01 ***p<.001

$p < .001$)은 부정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32.0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59$ 으로 5.9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beta = -.319, t = -7.622, p < .001$)는 긍정적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58.10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102$ 으로 10.2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beta = .551, t = 14.958, p < .001$)는 부정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223.73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304$ 으로 30.4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스트레스($\beta = -.264, t = -6.204, p < .001$)는 준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38.4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70$ 으로 7.0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태도($\beta = .505, t = 13.251, p < .001$)는 준수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175.58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255$ 으로 25.5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 태도($\beta = -.244, t = -5.693, p < .001$)는 준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32.40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060$ 으로 6.0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복장검사 강도지각이 강할수록 복장규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는 낮고 부정적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준수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준수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ig. 1과 같이 복장검사 강도가 강할수록 복장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이고 복장규제 태도 중 부정적 태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는 긍정적 태도를 낮추고 부정적 태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준수행동은 긍정적 태도가 높고 부정적 태도가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검사강도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복장규제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복장규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시키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복장규제에 대한 준수행동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의 복장규제 상황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복장규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의복욕구가 복장규제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복장규제로 인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태도 형성에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에 관한 근거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복장규제 실태를 복장검사 강도지각과 빈도지각 및 복장검사 항목과 처벌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두발검사와 액세서리 착용 및 꾸미기 검사의 강도를 더 강하게 지각하였고, 학년군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검사강도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검사의 빈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복장규제의 검사항목을 확인한 결과 학생용의복장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가방과 신발 등의 디자인과 색상의 제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복장규제의 처벌 방법은 반성문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2011년 3월부터(“경기도, 학교체벌”, 2010) 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어 학교현장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학교 문화가 대폭적인 수정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복장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학교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성격특성, 의복욕구, 복장검사 강도지각에 따른 복장규제 반응을 살펴본 결과, 성격특성 중 책임감과 창의성은 복장규제 반응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책임감과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이 복장규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복장규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시키고 복장규제에 대한 준수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장규제의 긍정적 태도와 준수행동을 낮추는 요인인 유행추구성을 청소년에게 지양시키기 보다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더 높다(김현주, 박진영, 2007)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고 복장규제를 완화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복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복장검사 강도지각, 스트레스, 복장규제태도, 준수행동의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복장규제의 검사강도가 강할수록 복장규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긍정적 태도와 준수행동을 낮추고 부정적 태도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장규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준수행동을 높이고 부정적 태도는 준수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장규제의 검사강도는 복장규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복장규제의 준수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이 느끼는 복장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복장규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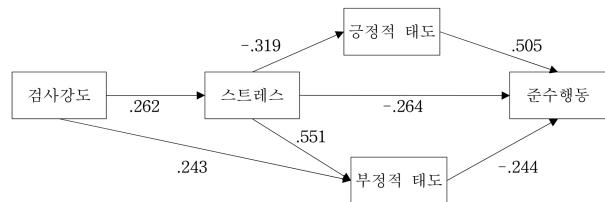


Fig. 1. 복장검사 강도지각, 스트레스, 복장규제 태도, 준수행동의 영향 관계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나아가서 청소년의 복장규제에 대한 준수행동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의 복장규제 상황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학생용의복장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복장규제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검사항목의 거의 대부분이 과반 수 이상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항목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학생용의복장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처벌 방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부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학생용의복장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고 여기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도화한 복장규제는 청소년들의 갈등과 불만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책임감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복장규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복장규제의 긍정적 태도와 준수행동을 낮추는 요인인 유행추구성을 무조건 적으로 청소년에게 지양시키기 보다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더 높다(김현주, 박진영, 2007)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위해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복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 복장검사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규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복장규제에 대한 갈등과 불만족을 해소하고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복장규제 수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복장규제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적 효과와 청소년이 심리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학교가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학교로 고르게 분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각 학교의 지역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교마다 제외된 학년이 존재하여 학년 층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데 아쉬움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조사의 편의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횡단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와 성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격특성과 의복욕구의 하위변인 설정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변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요인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장경자. (1984). 여대생의 기본욕구와 의복선택 행동간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1-25.

강혜원. (1984). *의상사회 심리학*. 서울; 교문사.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2차).

경기도, 내년 3월부터 학교체벌 금지. (2010. 9. 1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9). 여고생의 교복 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31-41.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2007*.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김경희. (1999). *중·고등학생들의 의복 동조와 의복 태도와의 관련연구: 서울 거주자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희, 정성지. (2002). *청소년 소비자의 의복동조성과 이미테이션 패션상품 구매태도-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복례. (2005). *중학교의 교칙과 규제에 관한 연구:중학교의 교칙과 규제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인, 강혜원. (1981).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 13-19.

김요셉. (2009).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1990). *서울 시 남·녀 고교생의 교복, 자유복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박진영. (2007). 청소년의 자기표현 욕구와 자존감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7, 69-88.

김현지, 채진미, 오경화. (2009). 인터넷 쇼핑물 이용 청소년의 의복 쇼핑성향과 불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21(3), 65-81.

김현화. (2007).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 및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미. (2007). *청소년의 의복태도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지영, 박주아, 신미란, 홍수연, 홍지연, 황정민. (1999). 여고생의 교복변형행동과 교복태도, 의복태도 및 심리적 특성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32, 16-19.

류지영. (2001). *학교 규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저항운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니치마 등 방치 교장 211명 직무유기고소 학부모 단체의 변형교복 투쟁. (2010, 6. 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 자료검색일, 자료출처.

손유정. (2000). *창의성에 관한 뇌 과학적 탐구 및 창의성 교육의 방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인섭, 김혜숙. (1999). 창의성 개념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암시적 창의성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3), 93-117.

송한경. (2002). *초등학생의 책임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선경, 양숙희. (2001). 복식에 대한 검열방식 연구: 청소년 용의복장 규제와 방송복장심의 규제를 중심으로. *복식*, 51(1), 105-117.

안진. (2007). *여고생의 비행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숙. (1996). 성격특성 및 귀인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관순. (1984). 성격특성과 이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2), 1-9.
- 유연재. (2002).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척도의 한국 타당화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김용숙. (2001).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18.
- 이수희. (1988). 여고생의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경, 이해자, 한영숙. (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33-148.
- 이용택. (2003).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 서정희. (1991).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생활과학논문집*, 1(1), 79-92.
- 이인자. (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785-799.
- 이정현, 이윤정. (2008). 고등학생들의 학교 외모규제에 대한 지각 및 태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2), 47-60.
- 이혜숙. (2002). 학생생활지도와 기본권: 학생소지품 검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8, 143-158.
- 정명근. (2004).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와 인지 욕구가 중소기업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 (1988). *교육평가*. 서울: 교육출판사.
- 정숙정. (1987). 여대생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해전대학 논문집*, 5, 437-463.
- 정준교. (2000). 창의성, 개성, 학업성적, 정제경험 및 복장변형행동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 31-68.
- 정준교, 이선경. (1999). 교복자율화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3), 471-482.
- 정준교, 이선경. (2003). 창의성, 개성, 동조성에 따른 고교생의 의복행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9), 1-16.
- 조안나. (2008).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용의복장규정 준수행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2002). 고등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태도와 의복행동 및 구매행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숙.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 (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 Eysenck, H. J. (196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2nd ed.). London : Methuen.

(2011년 1월 9일 접수/ 2011년 2월 1일 1차 수정/2011년 2월 1일 게재확정)